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어딘지 서글픈 신조어 알고 있나요?

핵인싸 언박싱
저세상 텐션 푸안꾸
인싸템



줄임말과 합성어로 이뤄진 신조어가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다. 누군가는 너무 가볍고 유치하다며 고개를 내저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이 들어있다. 언뜻 보면 웃기고 자세히 보면 서글픈 신조어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글 편집실

국밥 빌런과 갑통알,

각박한 현실을 그려

‘국밥 빌런(villain)’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밥 빌런은 어떤 물건이든 국밥에 비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유행하는 말투로 국밥 빌런은 모든 물건의 가치를 국밥으로 환산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2~3만 원대 옷을 구입한 사람을 보면서 ‘저 돈이면 국밥 3~4그릇은 거뜰히 먹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이다.

싸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국밥은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이다. 일상의 모든 행위를 국밥이라는 생계수단과 연결해 표현하는 이들. 재밌고 구수한 우스갯소리로 여기며 순식간에 유행을 탔지만, 다시 생각하면 무엇을 사든 국밥을 떠올려야 하는 그 상황이 안타깝게 다가온다. ‘편의점 도시락족’의 줄임말인 ‘편도족’도 국밥 빌런과 비슷한 개념이다. 4000~5000원짜리 도시락 한 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세태를 담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3,7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한 번 이상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한 사람이 58.7%였다. 그중 44.6%는 도시락을 구입해 먹은 것으로 나온다.

신조어 ‘갑통알’도 각박한 현실을 다루기는 마찬가지다.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 할 것 같음’이라는 뜻의 줄임말로 월급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월급은 받았지만 카드 값, 공과금, 집세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삶.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껴서 저축해도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운 세상을 신조어는 그리고 있다.

신조어 통해 사회문제 살피고

~~~~~ 나아갈 방향 모색

많은 중장년층이 신조어를 젊은이들이나 쓰는 가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이다. 그냥 웃어넘기기에 신조어에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을 향한 젊은 세대의 울분이 신조어에서 엿보인다.

한때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와 사회적 계급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공공연해졌다. 그런데 ‘무전무업(無錢無業)’, ‘퇴준생’이란 신조어를 통해 흙수저들의 절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 준비가 어려운 가난한 젊은이들은 일정한 수입과 복지가 보장되는 직장을 가지기 어렵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말, ‘무전무업’은 이러한 시대상황을 풍자한다. 취업이 어려운 세상은 ‘우선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 돈을 벌면서 이직을 준비하자’는 생각을 낳았다. 그래서 입사와 동시에 퇴직(이직)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 일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적당히 일하고 마음껏 즐기자’는 이들도 많아졌다. ‘복세편살’이란 신조어는 ‘워라밸’, ‘소확행’과 유사한 맥락의 단어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에는 정신이 담기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회 흐름을 제대로 읽고 싶다면 신조어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을 권한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이 그 안에 들어 있다. ☺

